

담양, 치매예방 전문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교육 수료자 지역서 맞춤형 치매전문 강사로 활동 예정

통합적 인지건강 및 교구 활용 인지기능 증진 등 교육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치매예방 전문관리사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과 30일 2회에 걸쳐 치매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 발열체크,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치매전문 교수를 초빙해 치매예방과

통합적 인지건강, 교구를 활용한 인지기능 증진방법 등 치매예방 전문 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 수료자는 앞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기술과 이론을 기초로 마을 경로당 등에서 지역별 맞춤형 치매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에 참여한 수료자는 "치매예방 전문관리사로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게 생각하며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담양 만들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best1@

나주,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나주시가 치아 결손 등 구강 건강이 취약한 지역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틀니지원사업이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지원 대상자 95명을 선정, 현재까지 67명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나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다.

보건소 1차 구강검진 이후 관내 치과의원(30개소)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시술을 진행한다.

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금액을 제외한 틀니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부분틀니(양악기준) 지대치 시술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틀니 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 편약만 시술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반대편 편약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치(틀니) 시술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역 내 더 많은 저소득층 시민이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연령 제한을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061-339-2165)로 하면 된다.

/나주=서성택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인·구직자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섰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는 직업상담사 4명이 상주해 체계적인 구인·구직자 관리, 취업상담, 면접코칭,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자 가교 역할

일자리 소통공간 자리매김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윈스톱 제공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인·구직자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섰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는 직업상담사 4명이 상주해 체계적인 구인·구직자 관리, 취업상담, 면접코칭,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상담사들이 매주 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에 적합한 구직자 알선 등 일 자리를 발굴하고 구인등록부터 채용지원 서비스까지 윈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자에게는 취업컨설팅, 동행면접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무엇보다 개인별 심층상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활발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자리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영광군일자리지원

센터가 명실상부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자리지원센터는 군민이면 누구나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영광군청 별관(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위치한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061-350-5517/352-7977-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나주, 광주35번 확진자 접촉자 '전원 음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광주 35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나주 동료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검체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35번 확진자 A씨는 광주 동구 60대 남성으로 광주34번 확진자의 배우자다.

A씨는 지난달 27일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26일까지 3일 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A씨의 근무지는 배전반 등 부품을 생산하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으로 총 12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나주시에 거주하는 직원은 총 4명

(사무직1·생산직3)이다.

나주시보건소는 27일 A씨의 동료 직원 4명과 직원 가족 2명에 대한 검체를 의뢰했다.

검체 결과 6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는 당일 확진자 A씨의 작업장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 조치를 완료했으며 확진자 추가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주말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무증상 또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장성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장성군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을 사용해 단지별로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장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벼 재배 전(全) 면적에 대해 이를 도입해왔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적기 방제가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 벼 재배 농업인으로, 작년 쌀 변동직불금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ha 당 15만원(약제비, 공동방제비 등)까지 지원한다.

공동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7월

3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향후 공급량을 확정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중점 방제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작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이행을 위해 군은 방제단, 도우미 등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단보단 쌀 생산량 전남도 내 1위(491kg, 국가통계포털)를 기록했다. 군은 경화장, 상토, 매트, 맞춤형 비료, 육묘상차 처리제, 액상규산, 건조기, 지게차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장성=유광중 기자 hanjae365@

화순 초당옥수수, 주민 새 소득원으로 부상

화순군(군수 구충근)이 틈새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초당옥수수를 29일 첫 수확했다.

초당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생으로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3~5분만 익혀 먹을 수 있다. 무더운 여름 먹기 간편하고 특유의 달콤함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화순군은 활옥수수가 흉수 출하로 가격이 하락할 때 초당옥수수를 출하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 2019년부터 지역 틈새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1읍·면 1틈새 소득 작목' 사업의 하나로 춘양면에서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작목이 초당옥수수다.

이번 사업은 20농가가 참여해 5.3ha 재배하고 있으며, 농협을 통해 (주)감동에 출하할 예정이다. 당분의 변화로 빨리 출하를 해야 하는 초당옥수수의 유통 어려움을 계약재배로 해소했다.

화순군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산물 수입개방, 작목별 과잉생산,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읍·면 1틈새 소득 작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